

성령

위키백과에 따르면, 성령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에서 하느님을 이루는 세가지 위격(페르소나) 중 삼위를 가리키는 칭호로서, 성신(聖神)이라고도 한다”고 적고 있다. 이는 대중적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성령을 ‘하느님’과 관련해 쓰는데, ‘하느님’ 이해가 인간의 영역 밖이고 또 그 근거가 불분명/충분한만큼, 그로부터 파생되는 성령 이해 또한 각양각색이다.

문제점.

삼위(Triune God=> trinity)를 말하려면 성부(Holy Father), 성자(Holy Son), 성령(Holy Spirit)를 말해야 할텐데, 마 28:19의 아버지(Father), 아들(Son), 성령(Holy Spirit) 혹은 고후 13:14의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성령에서 볼 수 있듯 언어에 통일이 없다. 그냥 Father, Son, Spirit 이라고 해야 비교대상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거룩하다(holy)는 것은 형용사로서 자체로는 존재의미를 잃는다. 곧 초점이 영(πνεῦμα)이라는 말이다.

헬라이어 영(πνεῦμα)의 의미는 여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의미를 갖는다: ① wind, breath; ② spirit. 이런 의미가 요 3:8에 잘 실려 있고, 히브리어 루아흐(רוח)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본래 히브리 사상에는 천사/악마와 같은 영적 존재, 부활, 심판개념 등이 없었는데, 후기 유대교로 오면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으로 성령, 악마를 초자연적 존재로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영/정신 다시 이해하기

1. Metaphysical: 외적인 힘, 초능력=> 누구는 좋겠다
2. Metaphorical: 내적 감동. 누구에게나 열린 일. ‘하느님의 뜻/생각’=> 예수의 정신(Spirit/Geist)만 따른다면

독일어(Geist)처럼 영(πνεῦμα)은 spirit 과 mind(정신)로 번역될 수 있다 (e.g. Zeitgeist, 시대정신). 이 영/신(Spirit)은 어디서 오나? 하늘/하느님으로부터 내린다(막 1:10). 어디로? 예수 (맘) 속으로.

우리가 할 일

- 성령받기 위해 기도? Yes. 한 번으로 족한 일. 마음 먹는 것은 한 번. 그 후에는 행함. 작심삼일이라고 허구한 날 맘만 잡으면 뭐하나?
- 그 정신을 따라 산다. 그러면 기도는? 그 정신을 되새기는 일. 초점(다이얼) 맞추는 행위.

성령으로 뭐하나

1. 초능력? 누구 좋으라고
2. 예수 정신(Spirit, Geist) 계승. 예수의 영으로 예수를 산다. 지배이데올로기, 시대정신(Zeitgeist)을 따라 살지 않고.

결론.

1. 성령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영이며 이는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영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표현이다. 즉 영 자체는 성/속, 선/악의 value/ethical judgment 이전의 개념이다. 이것이 후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선악의 판단이 따른다. 마치 TNT, 핵처럼 이들의 쓰임에 따라 인류를 살리고 죽이고.
2. 따라서 성령은 하느님보다는 우리들과 연관해 쓰여야 할 말.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인간은 하느님의 영을 받았다(창 1:27; 2:7//요 20:22). 하느님의 영—not 성령—이 우리들 삶 속에 거룩한 영(성령)으로 나타나야 한다. 더러운 영으로 나타나면, 하느님의 영을 잘못 쓴 결과. (만물의 영장, 인간의 영이 하느님을 도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더러운 욕심으로 세상을 파멸로 몰아감).
3. 성령을 알지 못하는 초능력으로 이해하면, 내 삶도 변칙과 예외 그리고 무책임한 삶으로 일관. 그러나 더러운 시대정신에 대항하는 예수의 정신—고백하는 바 ‘거룩한’ 영—을 따르면, 내 삶은 늘 껴어있는 자성하는 삶.